

21년도 수능에 제일 중요한건
21년도 6,9월 평가원 문항이고,
거기서 출제된 인물들을
한페이지로 정리하고 문제별로
포인트를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수능 치기전에 여기 있는 내용은
최소한 다 외우고 가주세요 !!

본인이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서
시험 전에 복습용으로든 관촬을거같아요

중요 키워드

문항 해설

1.실천(응용)규범윤리학 # 제철 최신! # 실생활!

2.불교 # 누구나 부처 가능

3.매킨타이어 # 공동체적 자아

4.유교 # 인의예지

4-1.공자 # 성선설

4-2.순자 # 성악설, 본성악화

4-3.정약용 # 침범한 목민관

4-4.맹자 # 성선설 # 합산? 합심!

5.칸트 # 정언명령 # 영평화 가능

6.롤스 # 질서정연 # 무지 메일 # 노력 안권함

7.플라톤 # 이데아 # 죽을 깨물

8.아스퍼스, 하이데거 # 과학기술은 가치만면?

9.데카르트 # 생각하자 # 돌가계

10.레건 # 동물최고

12.문화를 보는 관점 # 용광로 ($A \cdot B = A$) # 쿼터점 ($A \cdot B = A, b$)
샬러드볼 ($A \cdot B = A, B$)

11.레오폴드 # 무병을까지 최고 # 근데 앓가능

13.사회계약 # 흠→로 →루

13-1.홉스 # 극단적 # 자연 개관

13-2.로크 # 무인 # 자연 법지?

13-3.루소 # 평화

14.베카리아 # 사형벌추천

15.벤담, 밀 # 최대최행

16.싱어 # 동물평등 # 인류평등

17.도가 # 물근듯어

18.하버마스 # 담론윤리

19.노직 # 롤스 개설행 # 자유최고

20.갈통 # 잔짜 평하는? # 폭력 두가지 제거

21.아리스토텔레스 # 중용! 중용! # 국가최고

22.현실주의/이상주의 # 세력균형 vs 규범

23.보부아르 # 페미니즘

24.요나스 # 공포 > 희망

25.볼노브 # 집

26.에피쿠로스 # 사람은 권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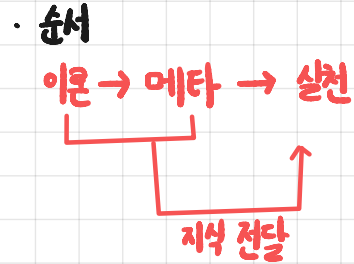
27.아도르노 # 대중예술 싫음

1. 실천(응용)규범윤리학

실생활 문제해결! 인접학문연관!
(학제적)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메타**
-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불교

누구나 부처님! 연가설!

(모든 연가설)

1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 (가) 요즘 사람들은 조문할 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해 한다. 그러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道)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본성을 망각한 것이다.

(나) 세상 사람들의 생사(生死)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供養)하면서 다음 생의 복(福)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 [自性]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 ① (가): 죽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輪廻)의 과정이다.
- ② (가):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이다.
- ③ (나):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④ (나): 죽음은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들 중 하나이다.
- ⑤ (가), (나): 죽음은 괴로운 인간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이다.

→ 삶과 죽음 모두 고통

2.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①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④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慎獨)해야 한다.
- ⑤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닫기 위한 수행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교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식사를 할 때 발원량

- ① (가):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②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 ③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 ④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⑤ (가), (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3. 매킨타이어

덕원리! 공동체주의!

(소속자, 연고자)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공동체주의, 덕원리

- ① 갑: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을: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킨타이어 → 칸트

나의 삶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실천 이성에 의해 정립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가 ㉠ 고 생각한다.

칸트

- ①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 ②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③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임을 간과했다
- ④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간과했다
- ⑤ 도덕이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했다

→ 공동체주의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을 강조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① (가):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②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 ③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 ④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⑤ (가), (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유교의 수기안인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5.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姓)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 후세를 이어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남녀의 구별(別)이 있으니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며,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 부부유별

→ 부자유친

→ 군신유의

— <보 기> —

- ㉠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 ㉡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 ㉢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 ㉣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4-1. 공자/순자/정약용/맹자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군자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으며, 소인은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해도 작은 일을 맡을 수 있다. 임금·신하·부모·자식이 각자 맡은 바 직분(名)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을: 성왕(聖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람의 덕(德)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 정명, 공자

→ 성왕, 순자

① 갑: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X → 분업을 강조함. 자기 일에만 능

② 갑: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을: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④ 을: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갑, 을: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플레톤

* 책객: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목민관의 태도, 정복

↳ 신분질서 ↓ 분업 ↑

목민관의 참합한 태도 강조!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③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을: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 맹자의 '형산 형심론'

형산: 일정한 재산
 형심: 변하지 않는 마음

선비(노림자) : 무형산 유형심

↳ 재산 없어도 도덕적 가능

백성(노력자) : 무형산 무형심

↳ 재산이 없으면 형심도 없다

↳ 백성에게 일정한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장본(長本) 도입함!

5. 칸트

정언명령
(‘무조건’ ~하라)

행위 동기 > 결과
↳ 도덕법에 대한 존경

영구평화 가능!

동물한테 간접 의무!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을: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예술 작품과 도덕 행위 유계점으로, 미 도덕 선의 성립 된다고 본 칸트의 입장이야.

(여기서 '형식의 유사성'은 둘 다 특정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① 갑: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 ② 갑: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 ③ 을: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 ④ 을: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⑤ 갑, 을: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

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칸트

<보기>

- ㄱ. A: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ㄴ. B: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ㄷ. C: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 ㄹ.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 칸트가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이유!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 하도록 억제 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p> <p>을: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 되어야 한다.</p> <p>병: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p>
(나)	

칸트는 형벌을 지은 법과 동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봤는데, 예사중 하던 살인범 → 사형에서 만약 살인범을 용서하거나 약한 처벌을 준다면, 그를 동물처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형이 살인범의 안위를 중중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으려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p> <p>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규정되던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 넘는 그 이상의 상태라 할 수 있다.</p>
--

칸트의 '영구평화론'

: 세계 영구평화 진짜 가능!!

예비조항

ex. 국가는 만여초로 대우, 쇠사, 폭력적임을 질머금지 등

확정조항

ex. 국가는 '공화정체'형태일것 (전쟁방지)

국제법 연맹조항을 토대로~ (단일국가 X !!)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p>갑: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p> <p>을: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p> <p>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p>
--

칸트의 입장

-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에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6. 롤스

원칙적입장! 무지의 베일, 정악원칙 1 > " 2 . 질서정연 사회 만들기!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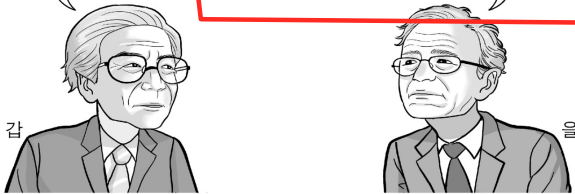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 국가 체제는 인정해야 함.**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공동체의 정의감을 기반으로 행해야 함.**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롤스
= 질서정연해질 때 까지만!
빈곤해도 원조 중단 ~!!

-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원조 대상의 자율성 확보되어야 한다!**
- ② 갑: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한다.
- ③ 을: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다.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분배는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나아지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역도 불평등 발생해도 괜찮음. (차등의 원칙)**
 을: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롤스의 분배 ·

		4점씩			
		갑	을	병	→ 재허의양
사회	A	5	1	10	⇒ 16
"	B	5	1	16	⇒ 25
"	C	8	2	92	⇒ 102

→ 롤스는 B를 선택할 것이다.
최소수혜자인 '을'의 처지가 제일 좋으니

↓
공약의 자들이 고를 수 있었죠?

- ① 갑: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을: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④ 을: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⑤ 갑, 을: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을: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 원리적 입장, 무의 배반

<보 기>

- ㄱ. 갑: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ㄴ. 을: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 ㄷ. 을: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 ㄹ. 갑, 을: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질서정편 X

(가) 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돕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을: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나)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를 지니므로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 원조를 의무 차원으로 보는 권력 입장이.

<보 기>

- ㄱ. A: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 ㄴ. B: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 ㄷ. B: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 ㄹ. C: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 가능. 질서정편 하다면

→ ≡ 질서정편하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플라톤

이데아! 타고난 성향 세 계급 & 역할 교환 X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을: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 ② 갑: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③ 을: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④ 을: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데아! 플라톤!

↓ 영혼

↓ 출생

↓ 육체는 감각

↓ 죽음

이데아!

⇒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 아냐!
육체에서 벗어나 이데아 복귀 가능!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피야 한다.

* 책객: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 ③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 타고난 계급에 맞게 본인 일만 잘하면 된다.
역할 교환 절대 X

통치자 : 재산, 아내, 자녀 (철학자), 자제력 덕!

방위자 : "

계급 생산자

→ 역할 교환 하지 말라고 !!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을: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 ① 갑: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 ② 갑: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 ③ 을: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 ④ 을: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 ⑤ 갑, 을: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예술에 대해 도덕주의, 플라톤

→ 예술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8. 야스퍼스, 하이데거

과학기술 가치 중립 vs 가치제입

(야스퍼스)

(하이데거)

8.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기술은 인간됨, 가치 중립적임을 주장하는 야스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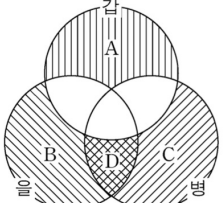
→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 하이데거!

- ①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O X
- ②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③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④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9. 데카르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p> <p>을: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 <p>병: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 데카르트의 입장!

'동물은 영혼이 아예 없으므로, 동물이 내는 울음 같은 자각에서 나는 쇠뇌와 다를 것이 없다'

'동물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기계이다' (X)
 ↳ 동물 영혼 없다.

<보기>

- ㄱ.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 ㄴ. B: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 ㄷ. C: 살아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 ㄹ. D: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 데카르트가 동역할 내용!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 레건

패고감능력 ⊕ α 가치 있음 ⇒ 도덕적 고려 대상! (삶의 주체)

(α. 자율적 행동, 행위)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p> <p>을: 일부 포유동물은 <u>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u>.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과 <u>목적</u>을 추구하기 위해 <u>행위할 능력</u>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 <p>병: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u>윤리적 관점</u>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패고감능력과 함께 행위
→ 삶의 주체가 될 능력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p> <p>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u>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u>.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u>개별적 복지</u>를 추구한다.</p> <p>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p>
(나)	

패고감능 ⊕ 개별적 복지 = 내재적 가치 = 삶의 주체 = 도덕적 고려 대상

<보기>

- ㄱ. A: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ㄴ. B: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ㄷ.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 ㄹ.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11. 레오폴드

대지윤리! , 전체 생태계 > 개별 생명체 중시! , 경제적 이용 0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p> <p>을: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 <p>병: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 레오폴드! 대지윤리!
대지 피라미드!

대지윤리: 도덕 공동체 범위를 무생물까지!
→ 경제적, 심미적, 윤리적 가치 0

<보기>

- ㄱ.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ㄴ. B: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 ㄷ. C: 살아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0
- ㄹ. D: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0

→ 인간 중심의 세계 도파할 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샐러드볼/국수대접

샐 : $A+B \rightarrow A, B$
 (이름과 설명 없음)
 동등하게 문화 교환 주제!

국수 : $A+B = A, b$
 (고명+면) (면, 고명)
 보적 / 권
 주류+비주류 권, 공존!

11.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 각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다양한 고명들이 첨가됨으로써 맛이 풍부해 지듯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허용함으로써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보기>

- ㉠ 갑: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을: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갑, 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 갑, 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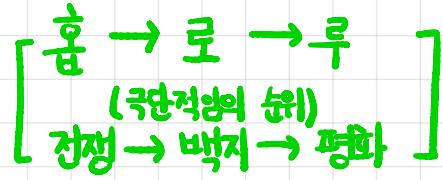
용광로 (동화력) : $A+B=A$
 (주류문화만)

샐러드볼 (다문화력) : $A+B=A, B$
 (대등공존)

국수대접 (문화다원력) : $A+B=A, b$
 (주류권공)

13. 흡스/로크/루소

사회계약!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을: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루소: 사형제 존치
 사회계약 → 인권보장
 → 총력법은 양위법(사형)
 (국가에 생명양도 금지)

살인범 = 국외적

- ①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③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④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루소의 관

14. 베카리아

사회계약, 공리주의 ⇒ 사형 효과 ↓, 최다·최형 맞는 다른 형벌!
↳ 징역형!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을: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베카리아**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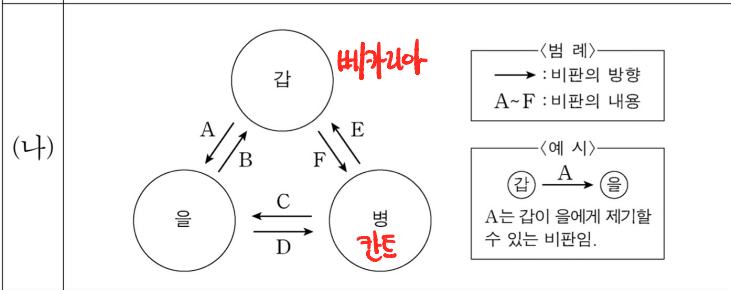
베카리아: 사형제 폐지
 사회계약 → 권리보
 → 사형은 일시적 효과 ↓
 → 효과 좋은 징역 노역형!
 '사형감행은 국가의 범죄 행태다'

- ①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③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④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징역노역형!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베카!**
 을: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병: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 ① A: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D: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④ F: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⑤ C, E: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베카리아 → 칸트도 적절

칸트 형벌로 범죄예방 목적X **베카리아는 최다최형 목적! (공리주의)**

15. 벤담/밀

공리주의! 최대최행!

14.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 ④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밀

독해 문제!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p> <p>을: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p> <p>병: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공리주의자 변함은 형벌은 해악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필악'이라고 보았다 (최현의 양)

- ① A: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D: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④ F: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⑤ C, E: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16.싱어

이익 동등 '고려' (차우)

세계 시민주의! → 원조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p> <p>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p> <p>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 이익평등! 상!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p>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p> <p>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p>

→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공리주의자, '생'이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9. 그림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추기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최대치형, 공약위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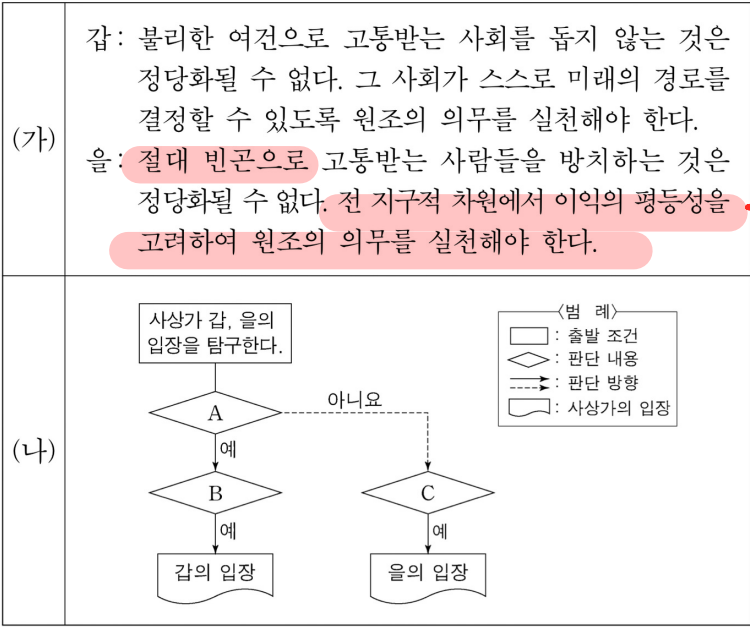
세계시민

-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한다.
- ⓧ 을: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을: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세계시민!! 상위!!!

포함된다. 세계시민이니까~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역평등시켜, 세계시민적 : 상위

<보기>

- ㄱ. A: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 ㄴ. B: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 ㄷ. B: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 ㄹ. C: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본인이 가능한데 원조를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평등시켜주고, 공약이 아닌 상위 입장에서 원조에 과도한 희생이 따르면 되게 효율↓ 최치형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도가(노자/장자)

물흐듯 살아가기.. 무위자연! (도교와 권 다음 생환에서는 권X)

1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요즘 사람들은 조문할 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해 한다. 그러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道)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본성을 망각한 것이다.

(나) 세상 사람들의 생사(生死)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供養)하면서 다음 생의 복(福)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 [自性]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 ① ~~(가)~~: 죽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輪廻)의 과정이다.
- ② ~~(나)~~: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이다. → 애도 불필요! 자연스러운 기 원의 뿐..
- ③ (나):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④ (가): 죽음은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들 중 하나이다.
- ⑤ (가), (나): 죽음은 괴로운 인간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이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썩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9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도가 부정할 선지! 인위적 규범 싫어함!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18. 하버마스

담론윤리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 ①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④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명장암체!**
- ⑤ 상호 인정의 자세는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상호인정은 아, 완전동일아는 X**

19.노직

자유를 매우 좋아함. 세금 과한거 싫고, 원조 강도 싫음. '롤정노비'!

(롤스 정형노비 변경)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다.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을: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노직의 소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갑: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을: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④ 을: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⑤ 갑, 을: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 '롤정노비': 롤스는 정형적인 분배, 노직은 비정형적 분배
 ③ 선자는 노직 (차등원칙...) (자재원)
 '이건분배는 잠형적이야!' 라고 비판하는것!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소유권리, 정당하게!

갑: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유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을: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보기>

- ㄱ. 갑: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ㄴ. 을: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 ㄷ. 을: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 ㄹ. 갑, 을: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 롤정노비, 노직의 정형적 분배 비판! (재분배는 '소유권리' 침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갈등

간접폭력 + 직접폭력 제거 → 평화!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규정되던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보기>

- ㉠ 갑: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 을: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 ㉣ 갑, 을: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갈등의 '적극적 평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 vs 적극적 평화

· 개인적·정치적 폭력 X
[전쟁, 테러]

· 직접, 물리적 간접적 폭력 제거
[구조적·문화적 폭력, 빈곤·차별] X

↳ 간접폭력 제거

21. 아리스토텔레스

덕이! 중용!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이다.
국가는 최선의 공동체이며 그런국가의 법을 지키는것이 '정의'이다.

<보 기>

- ㉠ 갑: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 ㉡ 갑: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 ㉢ 을: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 리. 갑, 을: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격절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2. 현실주의/이상주의

현실 (세력균형·동맹)

/ 이상 (국제기구, 규범)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이상주의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현실주의

- ① (가):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나):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④ (나):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⑤ (가), (나):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23. 보부아르

실존주의, 양성평등, 페미니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3.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 보부아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 특성은 생물학적이 아님. 단지 사회 역할로 만들어진 것. 페미니즘

-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24. 요나스

새로운 환경윤리가 필요!

공포의 발견들 : 악에 대한 공포 > 해파린딩

5.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나스 : 윤리적 공백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윤리!
→ 예견불가능성과 가능 결과 모두 책임 지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운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악에 대한 공포가 선에 대한 희망보다 효과가 좋다고 보았다.

· 책임
인간 → 자연 (o)
자연 → 인간 (x)

· 생태학적 정현명명, 목적o

<보기>

- ㉠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5. 볼노브

주거공간은 열감과 연협의 공간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볼노브의 거주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제시문 독해로 이해 가능.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26. 에피쿠로스

유물론: 인은 원자, 죽음은 원자해체 → 죽음 별거 아님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을: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무'의 상태다.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 갑: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 **그런거 없다. 그냥 원자 해체될 뿐..**
- 갑: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
- 을: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을: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 갑, 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
-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
-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
-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
-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

↳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함